
동작구 의회 일본연수 최종보고서

- 기 간 : 2014. 11.4(화)~11.8(토), 4박 5일
- 지 역 : 일본(도쿄, 요코하마)

동 작 구 의 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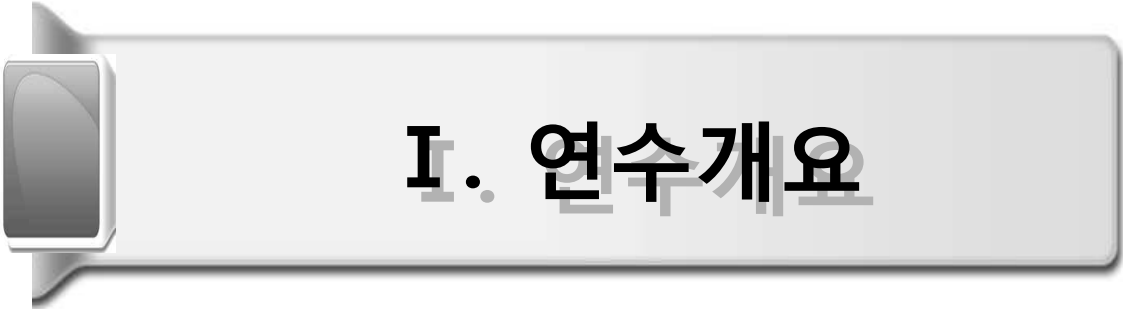
I. 연수개요	8
---------------	---

II. 연수내용

1. 실버 인재의 평생교육 시스템	15
- 세가타야 생애대학(生涯大学)	
2. 유보연계형 유치원 운영 및 교수학습법	22
- 하네기 어린이원(羽根木こども園)	
3. 일본 마을만들기의 모델 지역	30
- 세가타야구 마을만들기 추진과(世田谷区町づくり推進課)	
4. 재해발생시 대처행동 체험학습 시설	37
-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東京臨海広域防災公園)	
5.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40
- 요코하마시청 문화관광국 창조도시추진과(横浜市文化観光局)	
6. 여성 취업촉진 및 취업 장려 프로그램 운영정책	50
- 도쿄 시고토센터(東京しごとセンター)	
7. 시사점 및 정책제안	54

III. 참고자료

1. 타이시도 2·3지구 지역 마을만들기 및 지구 계획	64
2. 츠키시마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사례	68



I. 연수개요

1. 연수 개요

- 연수명 : 동작구의회 일본연수
- 기 간 : 2014년 11월4일(화)~11월8일(토), 4박5일
- 국 가 : 일본
- 도 시 : 도쿄, 요코하마

2. 세부 일정

일 자	도 시	교 통	시 간	조 사 일 정
제1일 11.4(화)	김포 도쿄	NH1160 전용차량	07:55	김포 국제공항 출발
			09:55	하네다 국제공항 도착 / 입국수속
			12:00	중식
			14:00	세타가야 생애대학 : 실버인재의 평생교육 시스템
			16:00	하네기 어린이원 : 유보연계형 유치원 운영 및 교수학습법
			18:00	석식
			20:00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제2일 11.5(수)	도쿄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09:30	세타가야구청 마을만들기추진과 : 일본 마을만들기의 모델 지역
			11:30	중식
			12:30	소나 에리어 도쿄 : 재해발생시 대처행동 체험학습 시설
			16:00	도쿄 문화탐방 : 시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도청 전망대, 신주쿠 일대
			18:00	석식
			20:00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제3일 11.6(목)	도쿄 요코하마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08:30	도쿄 출발
			09:30	요코하마 도착
			10:00	요코하마 창조도시추진과 :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11:30	중식
			14:00	요코하마 문화탐방 : 미나토미라이 랜드마크 타워, 야마시타 공원
			17:00	요코하마 출발
			18:00	동경 도착
	도쿄		18:30	석식
			20:00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일 자	도 시	교 통	시 간	조 사 일 정
제4일 11.7(금)	도쿄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10:00	[현장견학] 츠키시마 재래시장 도쿄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12:00	중식
			15:00	여성취업지원센터, 일하는 여성의 역사전시관 : 여성 취업촉진 및 패밀리 서포트프로그램 운영정책
			18:00	석식
			20:00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제5일 11.8(토)	도쿄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09:30	도쿄 도시정비계획 신도시건설 현장탐방 : 오다이바, 긴자, 롯본기 등
			12:00	중식
	김포	NH1165	14:30	하네다 국제공항 도착
			16:20	하네다 국제공항 출발
			18:50	김포 국제공항 도착

3. 참가자 명단

구 분	연 번	성 명	전화번호
의 원	1	유 태 철	010-5345-2033
	2	황 동 혁	010-5315-7222
	3	강 한 옥	010-5878-5111
	4	신 희 근	010-2277-5757
	5	양 창 원	010-6432-2372
	6	전 갑 봉	010-3717-1420
	7	김 명 기	010-6372-6857
	8	김 성 근	010-3245-7292
	9	최 민 규	010-3759-1325
	10	김 재 열	010-5250-1762
	11	김 현 상	010-9176-7071
	12	최 정 춘	010-5428-0304
	13	최 정 아	010-2301-9355
	14	김 순 희	010-5233-2364
	15	김 주 은	010-9044-8710
직 원	16	김 병 종	010-3891-7187
	17	전 화 란	010-9848-0125
	18	우 은 제	010-5484-4108
	19	이 정 열	010-9248-5404
	20	손 선 경	010-7677-0627
	21	김 성 복	010-9081-0530

※ 통역 및 가이드 : 연태관(010-6415-7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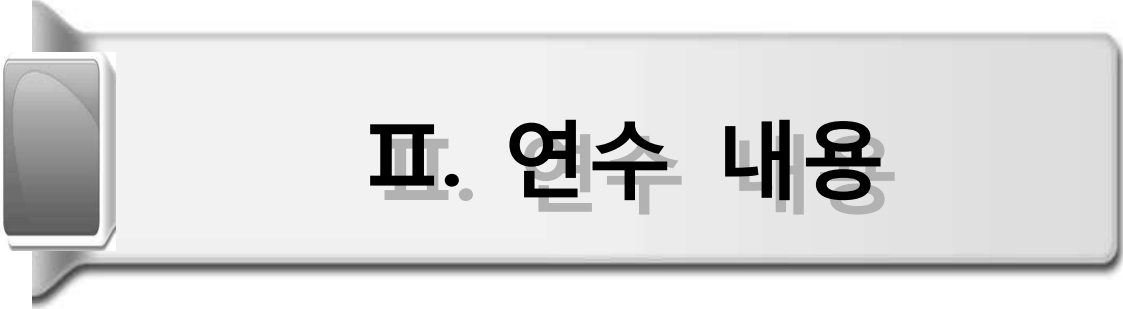
4. 이동경로

A.도쿄 → B.요코하마 → C.도쿄



5. 방문기관 현황

일시	방문기관명·연락처	브리핑·안내 담당자
11/4(화) 14:00 - 15:30	세타가야 생애대학(生涯大学) 東京都世田谷区池尻2 - 3 - 1 1 Tel : +81 03-3327-5030	• 코바야시 료우지(小林良二), 학장 • 후지시마유키히코(藤島幸彦), 부학장 • 스기노켄조(杉野憲三), 사무국장
11/4(화) 16:00 - 17:00	하네기 어린이원(羽根木こども園) 東京都世田谷区代田4丁目25番9号 Tel : +81 03-3327-5030	• 타카바시케이타(高橋慶太), 원장
11/5(수) 10:00 - 11:30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추진과 (世田谷区町づくり推進課) 世田谷区太子堂2 - 1 - 1 Tel : +81 03 5432 2872	• 후타미 세이(二見征), 계장 • 아오키 유우코(青木優子), 계장 • 우메다 마사유키(梅津 政之輔), 타이시도 마을만들기 협의회 회장
11/5(수) 12:30 - 14:00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東京臨海広域防災公園) 東京都江東区有明3丁目8番35号 Tel : +81 03-3529-2180	
11/6(목) 13:30 - 15:00	요코하마시청 문화관광국 (横浜市文化観光局) 神奈川県横浜市中区本町6丁目 Tel : +81 80-3447-8953	• 야노슈지(矢野修司), 창조도시추진과장 • 마츠이 미레이(松井実麗),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장
11/7(금) 15:00 - 16:30	도쿄시고토센터 (東京しごとセンター) 東京都千代田区飯田橋3丁目10番3号 Tel : +81 3-5211-2306	• 야마모토아즈미(山本阿須実), 총무과 기획조정계장



Ⅱ. 연수 내용

1. 실버 인재의 평생교육 시스템

■ 세타가야 생애대학
(生涯大学)

世田谷区池尻2-3-11

Tel: +81 03-3412-307

	일본	11/4	화	14:00	도쿄
--	----	------	---	-------	----

□ 일본 내 생애대학의 시초

-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소자화(小子化)¹⁾, 고령화가 대두되었으며,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던 1900년대 후반 노인의 삶의 질 및 노후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애대학을 설립하게 됨.



▲브리핑 모습

- 노인대학은 고령자들의 생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후생성 산하 지역자치체 노인교육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1977년에 설립된 세타가야 생애대학이 있음. 세타가야 생애대학은 일본 내 생애대학의 시초로 다른 지역에 비해 먼저 추진되었음.

□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춘 생애대학 운영

- 현재 창립 37년째를 맞이한 생애대학은 7년 전 노인대학에서 생애대학으로 개명하였음. 고령자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자신의 발견과 자기개발을 통해 '제 3의 새로운 인생'을 창조함과 동시에 생애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장소로써 시니어 세대가 자주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1) 출생빈도가 감소하는 현상

설립함.

-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대부분 화이트칼라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학력, 소득수준, 생활수준이 높음. 따라서 다른 생애대학과 비교하여 학습의욕이 높고 다양한 클럽활동과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음.
- 현재 세타가야구 총인구 87만 명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19%이며, 이 중 생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1% 정도임.
- 세타가야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활동추진과의 관할 하에 있으며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임. 세타가야구 생애대학은 세타가야구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대학 외에 노인휴게실, 회의실과 강의실, 체육실, 도서관, 원예 강좌, 도예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연간 수업일수는 30일로, 한 개의 코스에 입학하면 2년간 주 1회 수업을 받으며, 여름·겨울 방학이 있음.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다른 코스로 재입학이 가능함. 규정 상 졸업 후 바로 재입학은 안 되지만 참관의 형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높아 수료 후 80% 이상은 수업 참관으로 계속 다니고 있음.

□ 건강체육과 세미나 방식의 강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학습

- 본 대학은 주 1회 세미나 방식의 강의와 건강체육 중심으로 학습하며 학생들의 자주적·주체적인 교류와 각종 서클활동도 하고 있음.
- 생애대학의 활동을 크게 문화·학습센터, 상담·활동센터로 구분하고 있음. 문화·학습센터 활동은 지적탐구, 정치 주인공으로서의 정치적 교양, 취미, 오락을 포함한 문화활동, 생리적·육체적 노화에 대비한 스포츠 활동, 지역 활동의 담당자로서 인격형성, 사회인식을 넓히기 위한 이동교실 등을 포함함.
- 상담·활동센터는 고령자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상담사업센터와 고령자가 지역발전과 연대에 기여하는 시민활동센터를 포함함. 상담사업센터는 고령자의 생활상담에 대응할 뿐 아니라, 상담사례를 학습소재 및 과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시민활동센터는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재훈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경애의 대상만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커뮤니티

니티 만들기의 역군으로 때로는 자원봉사자로서 새로운 지역창조의 추진자가 될 것을 지향하는 것임.

□ 생애대학의 과정별 프로그램

- 현대사회 과정 : 가족·교육·정치·경제·환경 등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함.
- 복지문화 과정 : 일본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흐름에 대한 교육, 자신의 인생과 경험의 이해 등을 통해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노인 복지, 아동교육 지원, 장애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설을 실제로 방문해 보면서 세타가야의 복지 시스템을 이해
- 환경관광 과정 : 도시문명이 발달하며 환경 문제 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구 환경과 지역 환경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배워 환경보전·환경개선의 방법을 배움. 세타가야구의 실태와 환경보전에 관한 과제에 대한 현지시찰, 일본 지방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이나 그린투어 시스템에 대해 배움.
- 일본건축·미술사 과정 : 고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일본의 건축양식이나 미술을 문화사적인 넓은 관점에서 소개함. 예술작품의 감상에서 불상 조각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술 작품을 보는 심미안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료 만들기를 목표로 함.
- 일본의 축제와 전통예능 과정 : 1,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생겨난 다양한 축제나 예능문화를 영상과 실제 연주를 동반한 강의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예능 전시 시설이나 자료관의 견학, 예능 감상, 세타가야 및 인근 지역의 축제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 건강체육(전 과정 필수과목) : 건강유지, 체력증진, 운동부족의 해소, 생활 습관적 질병이나 경상의 예방을 목표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



▲질의·응답 모습

으로 하는 체력 만들기 코스임. 라디오체조, 스트레칭, 레크레이션 댄스를 통해서 근력과 면역력, 혈액순환을 도움.

	9:15	10:45	11:20	12:20
현대사회 과정	매주 화요일	코스별 학습	쉬는 시간	건강체육
	9:25	10:25	11:00	12:30
복지문화 과정	매주 화요일	건강체육	쉬는 시간	코스별 학습
	9:45	10:45	12:30	14:00
환경관광 과정	매주 목요일	건강체육	점심 시간	코스별 학습
	10:00	11:40	13:30	14:30
일본건축·미술사 과정	매주 목요일	코스별 학습	점심 시간	건강체육
	11:30	12:30	14:20	15:50
일본축제와 전통예능과정	매주 목요일	건강체육	점심 시간	코스별 학습

▲2014년 과정별 시간표

□ 학생들이 조직·운영하는 문화제 정기 개최

- 중·고등학교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급별로 학급위원, 반장, 선생님이 있으며 반장을 중심으로 학급회의를 20분씩 정기적으로 개최함.
- 재학생의 협의기관으로써 학급 임원으로 구성된 학생협의회가 있으며 매년 10~11월 ‘생애대학 학원제’와 ‘와자지꼴세타가야 문화제’를 기획함.
- 생애대학 학원제의 운영위원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작품전이나 연주회를 개최함. 세타가야 문화제는 고연령자 클래스, 실버인재센터, 생애대학의 3개의 단체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시니어 시대의 문화제로 각 학급이 참여하여 작품전이나 연주회를 개최

□ 젊은 선생님과 고령의 학생이 함께 대학을 운영

-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선생님과 부모님 나이대의 학생이 함께 대학을 끝어나가는 것이 생애대학의 특징임.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배우는 자세를 갖추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함.
- 졸업 후 2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여 수업 참관형식으로 생애대학에 다니는 고령자를 '자주(自主)연수생'이라고 함. 5개 과정의 자주 연수생 100여 명이 모여 '자주연구회'를 구성하고 강의일정 조정, 진행 선생님 초빙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있음.

- 정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 후 2년간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학습함. 자기부담 금액은 연간 10,000엔~15,000엔 정도임. 2학년이 되면 각 코스에서 자주연구회 준비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을 중심으로 졸업 후 2년간의 과정을 준비함.
- 학습 활동 수료 이후에도 자주연구회, 동창회 등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에서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생애대학이 추구하는 7대 목표

- 7대 목표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생애대학에서는 담당교사에게 자율권을 부여
 1. 지역과 함께 살아간다 : 수업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느끼며 나아가 삶의 활력을 찾음으로써 같은 나이대의 고령자들에게 재능기부 봉사를 하거나, 사회에 마음을 담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일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노노(老老)케어²⁾를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
 2.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3. 젊은이와 공생(共生)한다 : 올 4월 세타가야 구립 건강증진 및 교류시설인 '세타가야 왓자지결관'으로 이전 하여,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청년관의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할 일을 찾고 있음. 학습과정 중 복지문화코스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 옛 동요 알려주기 등의 활동을 함.
 4. 건강하게 살아간다
 5. 땀을 흘리며 살아간다
 6. 가정·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성격과 가정에서의 성격이 다른 고령자가 많은데 생애대학을 다닌 이후부터는 사회뿐만 아니라 실제 가족과도 원만히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함.
 7. 문화와 함께 살아간다 : 인생과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

□ 생애대학의 중요한 목표는 '친구 만들기'

- 한반의 정원은 약 30명이며, 연령대는 80~90대임. 나이 범위가 다양하여 한 교실 안에서도 서른 살 정도의 나이 차가 나는 경우도 있어 가족과 같은 분위기

2)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이 거동불편하고 외로운 독거어르신을 돕는 사업

기로 공부할 수 있음.

- 처음 반 배정을 할 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학급을 구성하기 힘들지만, 반 배정과 학습 중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학급 간 상호 교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하고 있음.
- 60세가 넘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는데 생애대학에서는 친구를 만들 수 있어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음. 실제로 입학한 직후에는 모두 굳어있는 표정이지만 반년 정도 지나면 모두 표정이 밝아짐.



▲브리핑을 마친 후 단체사진

질의 · 응답

Q :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지원받는 예산과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

A : 한 학년의 정원은 약 150명이며, 총 학생 수는 250~300명 정도이다. 이 인원은 자주연수생은 제외한 숫자이다. 설립한 직후에는 무료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세타가야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이외의 학생 부담금이 생겼고 학생 부담금은 17,260엔 (수업료, 연간) 이다. 소풍, 행사가 있을 경우 회비를 모으며 그 금액은 연간 총액 730만엔 정도이다.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도쿄도에서 연간 519만엔, 세타가야구에서 연간 468만엔 정도 이다.

Q : 구립 외에 사립 생애대학이 있는지?

A : 민간으로 고령자를 위한 대학은 없다. 거의 구립 또는 시립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Q : 생애대학의 규모와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

A : 지금은 조금 작아져서 강의실은 2곳에서 운영하며, 1일 3~4개의 코스를 교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다. 사무소에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대학³⁾과 생애대학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년 퇴직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5년 정도이다. 시민대학과 생애대학은 완전 다른 곳이지만 인건비 등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만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Q : 세타가야 구내에 노인을 위한 다른 시설이 있는가?

A : 치매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가 일본 전역에 있다.

Q : 노인정이 있는가?

A : 일본 전역에도 노인정 같은 복지관이 있다. 하지만 노인정과 달리 이곳의 경우 대학 시스템을 차용하여 2년간의 긴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동창회도 열리고 있을 정도로 다른 일반 생애대학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엘리트 노인을 양성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으로 취학 대상은 18살 이상이지만 실제 수강생들은 대부분 중·고령자이며 경제, 정치 관련 내용을 가르침.

2. 유보연계형 유치원 운영 및 교수학습법



■ 하네기 어린이원
(羽根木こども園)

〒155-0033 東京都 世田谷区 代田4丁目25番9号

Tel: +81 03-3327-5030

	일본	11/4	화	16:00	도쿄
--	----	------	---	-------	----

□ 일본의 유보연계형 보육제도

- 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소는 한국처럼 관할 부처와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다름. 유치원은 문부과학성에서, 보육소는 후생노동성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즉, 유치원은 교육기관, 보육소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초기의 유치원은 전업주부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인식한 반면, 보육소는 부모가 제대로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에 자녀를 맡기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음.
- 하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유치원도 규정 시간 이외에 보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과 보육소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일하는 여성(엄마)의 증가와 함께 도시부를 중심으로 보육소 입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대기아동의 증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음.
- 이와 동시에 한 자녀화의 영향으로 아동수가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지는 유치원도 생겨났기 때문에, 유치원과 보육원을 일원화(一元化)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게 됨.
- 논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0월 '인정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이라는 시설이 생겼으며, 이용자와 시설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해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유치원 대상의 단시간 이용 아동과 보육원 대상의 장시간 이용 아동을 함께 일체

적으로 보육 및 교육하고 있음.



▲인정어린이원의 기능

- 인정어린이원은 취학 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법에 근거하여 기존 시설의 기능에서 교육·보육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부가하는 제도로 이원화제도를 공용화시설에서부터 시작하여 종합시설을 유보일원화 시설로 2005년에 선정, 실시함.
- 2006년에 종합시설로 검토해 온 사업을 인정어린이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무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산하의 유보연계추진실에서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4월 1일 현재, 인정 어린이원은 일본 전역에 1,359건이 인증 받았으며 효고현 118건, 도쿄도 103건, 이바라키현 99건 순임.

인증건수	공사 구분		유형별 분석			
	공립	사립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형	지방재량형
1,359개소	252개소	1,107개소	720개소	410개소	189개소	40개소

▲인정 어린이원 인정 건수

□ 유치원과 보육원 비교

- 유치원의 경우 한 달 보육료는 월 12만 엔, 정부 50%, 개인 50%로 부담하고 있으며 보육원의 보육료는 월 2만 5천 엔이고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 외 교재비, 급식비 등은 유치원과 보육원 모두 개인 부담임.

- 유치원법으로 교사 1인당 20명, 보육원법 교사 1인당 25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 일원화를 추진 중임. 하네기 어린이원의 경우 한반에 2명의 담임을 두어 조별 근무를 하고 있음.

	보육원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소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의 공동소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학교교육법	새로운 법률
보육대상	0세부터 취학 전의 보육에 결여된 영유아	만3세부터 취학전 유아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
보육시간	운영비 지급	4시간을 표준으로 하여 각 원에서 결정, 위탁보육도 있음.	4시간 공동교육시간과 8시간 보육시간
국고보조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1시간 이상 개소, 일시보육, 연장보육	사학조성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를 소득에 따라 지급	유보연대시설에는 재정우선 배치 예정
직종 및 직원 배치기준	보육사, 위탁의사, 조리원, 보육사	원장, 유치원 교사 (1학급 35명 이하, 학급은 동일학년에서 편성 원칙)	보육사·유치원교사, 지원배치 기준은 미정
입원결정	보호자가 자치체에 신청	보호자가 보육기관에 신청	보호자가 보육기관자에 신청
보육료, 이용료	자치체 따라 결정	보육기관이 결정	보육기관이 결정
급식	조리실 필히 배치	임의	외부 위탁 가능

▲보육원·유치원·인정어린이원 제도 및 현상 비교

□ 도쿄 제 1호 인정 어린이원인 하네기 어린이원

- 학교법인 토키와 학원에서 운영하는 하네기 유치원은 도쿄도 제1호 '인정 어린이원'으로 2007년 4월 개원 하였음. 보호자의 근로여부에 따라 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보호자에게 자녀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하네기 유치원은 아이들 한명 한명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 유치원 전경

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과 보육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개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를 익혀 밝고 사려심 깊은 아이가 되도록 키움.

- 어린이원의 △좋은 머리 △상냥한 마음 △건강한 신체 △참을성 강하게 라는 교육목표 아래 놀이에서 익힌 배움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김.
- '좋은 머리'는 친구나 물건,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자신을 관계시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흥미와 관심을 보이면서 배우며 사고하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며, '상냥한 마음'은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중에 함께 도와주며 협력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임.
- '건강한 신체'는 전신을 사용한 건강한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이 건강한 체력을 키우는 것이며, '참을성이 강하게'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의욕, 끈기, 고난을 넘어서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키우는 것임.

□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침보육과 연장보육 제도 운영

- 도쿄도의 중심 지역인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하네기 유치원은 총 면적 1,652.00㎡에 건물 면적은 718㎡이며,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임.
- 이사장과 원장을 비롯하여 보육교사, 간호원, 영양사, 관리인, 보육보조원 등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아과 위탁의사 제도도 있음.
- 하네기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각 35명 정원이며, 유치원에 45명, 보육원 60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음. 보육원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하고 개원하고 있음.

	3세 아동	4세 아동(연중)	5세 아동(연장)	합계
유치원	15명	15명	15명	45명
보육원	20명	20명	20명	60명
합 계	35명	35명	35명	105명

▲하네기 유치원과 어린이원의 인원수

- 기본 보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이며, 아침보육(7시30분~9시30분)과 연장보육시간(13시30분~18시30분)을 통해 맞벌이 부모들도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장보육의 월 등록비용은 10,000엔이며, 1일 이용 비용은 700엔임. 아침보육은 무료로 운영됨.

시간	유치원	보육원
7:30	아침보육(선택제)	순차등원
9:00 9:15	등원	조별 합동보육
9:30	놀이시간	
10:00	아침 인사 주활동·과제활동 등 급식 귀가 인사	
13:20 13:30	하원 준비 하원	낮잠준비
15:00	연장보육(선택제)	낮잠
15:30 18:30	간식, 놀이 순차 하원	
19:30		연장보육(선택제) 순차 하원

▲일일 보육시간

	2014년	2015년
입학허가 준비금		10,000엔 (납부 후 입학하지 않아도 환불 불가)
입학비	정부보조금 : 120,000엔(입학 시)	이용자 부담액 : 입학비+보육비(매월) ※ 소득에 따라 구청에서 정하는 금액(0~25,700엔)에 교육충실비가 더해진 금액(교재비 등)
보육비	정부보조금 : 25,000엔(매월) ※ 보육비 및 취학 장려비	
급식비	이용자 부담액 : 4,000엔 (매월) ※ 8월은 1일 200엔×이용일수	이용자 부담액 : 4,000엔(예정) ※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교재비	이용자 부담액 : 1,000엔(매월)	이용자 부담액 : 1,000엔(매월) ※ 보조금으로는 부족한 보육교재, 강사비에 충당하고 있음. 입학할 때 동의서를 받음.

▲하네기 유치원의 2015년 신제도 이행으로 인한 보육비 변화(예정)

□ 지역의 목재로 만든 놀이기구 사용

- 하네기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중 일부는 '나무와의 만남'이라는 사업 비 보조금에 의해 도쿄 타마 지역에서 생육된 목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짐. 나무와의 만남 사업은 일본 임야청에서 운영하는 우드 스타트(Wood Start)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으로 일본산 목재로 만든 장난감 보급을 통해 지역의 나무공예 장인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건강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우드 스타트는 일종의 지산지소(地산지消) 운동의 하나로 그 지방의 나무를 그 지방에서 사용하고 좋은 나무 장난감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우드스타트(Wood Start) 추진지역

질의 · 응답

Q : 간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A : 오전 간식타임은 따로 없으며, 오후 3시 30분에 간식시간을 갖고 오후 6시 30분 이후에 연장보육 아동의 경우 간단한 간식을 한 번 더 제공한다. 가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는 방식도 운영한다. 급식의 경우 주식과 야채 위주로 구성하여 영양 밸런스를 맞추어 제공하고 있다.

Q : 유치원과 보육원을 함께 운영하며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A : 보통 원아의 부모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데, 유치원이 끝난 후 보육원에 다시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으며 정부에서 유치원과 보육원 연계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질이 개선되었다.

Q : 장애아동의 의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휴일 보육은 하고 있는가?

A : 특별육아 지원반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장애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올해에는 지원 아동이 없었다. 휴일 보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Q : 교사에 대한 처우는 어떤가?

A : 교사처우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량에 비해 임금이 적기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적은 편이다.

Q : 한국의 경우 CCTV를 설치하여 유치원을 관리하거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A : 일본의 경우도 일부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네기 어린이원의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도난경보기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Q : 독일의 경우 흙 운동장에 대해서 8mm이하 자갈을 깔도록 되어있는데 흙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의 문제로 생기는 주변 민원은 있는가?

A : 일본의 경우 흙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민 민원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다. 개량된 흙이라 먼지가 기존의 흙에 비해 덜 난다.



▲질의·응답 모습



▲현장견학



▲브리핑 모습

3. 일본 마을만들기의 모델 지역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추진과
(世田谷区町づくり推進課)

世田谷区太子堂2-1-1

www.city.setagaya.lg.jp/kurashi/

Tel : +81 03 5432 2872

	일본	11/5	수	10:00	도쿄
--	----	------	---	-------	----

□ 세타가야구 연왕

- 세타가야구는 일본 내에서도 주민과 행정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바람직한 마을만들기의 시초라고 불리는 지역임.
- 도쿄를 구성하는 23구(区) 중의 하나로, 도쿄도내에서 가장 큰 구로서 약 58 km²의 면적에 87만 3천명의 인구와 4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인구밀도는 1km²당 2만 명으로 타이시도 2, 3번지는 시부야와 가깝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예부터 살고 있는 거주자도 많은 편임.

□ 주민과 행정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마을만들기

- 1970년대 고도성장으로 인한 공해 문제와 자연파괴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도 심해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과 행정 간의 타협의 결과물로 마찌즈꾸리(街づくり, 마을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것임.



▲브리핑 모습

- 연수단의 브리핑을 담당한 우메다 상(타이시도 마을만들기 협의회 회장)은

생활하며 느낀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사람 중심 인프라로 바꾸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 세타가야구의 인프라를 잘 정비하는 것이 목표임.

-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는 타이시도 지역의 '목조주택 재정비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2년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 내에 마을만들기 추진과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이후 1992년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환경설계 및 주민공동체운동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마을만들기 펀드'를 설립해 지속적인 재정보호시스템을 갖추었음.



□ 주민의 의사로 운영되는 마을만들기 협의회

-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마을만들기가 제안된 후 6개월간 예비 협의 과정을 거쳐서 발족하였음.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는 선출 또는 지원하여 운영되며, 현재는 희망자가 부족하여 3자리가 공석임.
- 이 협의회도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 30년 이상 대립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 행정과 주민의 대립, 주민과 주민의 대립으로 나뉘어 해결하고 협의하는 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양 측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음.
- 협의회는 주민들이 제시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함. 딱딱한 회의실에서 협의가 아닌 문제의 산책로를 걸으며 문제 사항에 대한 수집, 의견 교환을 하며 그곳에서 나온 의견, 협의 내용을 취합함. 특히 강력한 반대파의 주축 멤버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방침

1.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마을 만들기
2. 언제라도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회
3. 다수결 제도가 아닌 소수의 의견의 존중
4. 주민사이의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센터의 활동내용

- 1992년 설립된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센터'는 일본에서 처음 설립된 마찌즈꾸리(街づくり)센터로 2006년 세타가야 트러스트 협회와 통합되어 현재는 '(재)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찌즈꾸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음.
-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찌즈꾸리' 재단은 세타가야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과 각종 기부금, 국가 보조금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형성, 참여·연대·협동을 통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거나 지원함.
- 재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사유지 내의 녹지를 보존하거나 녹화를 추진하고 공공화하는 사업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 지원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 △세타가야 만들만들기 펀드 운영지원 △부대시설 설치와 관리 △구영·구립 주택 관리와 운영 △주차장 설치 등임.

□ 녹지확보와 주민교류를 위한 트러스트 운동

- 일본에는 많은 마을만들기 조직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녹지를 제공해줄 목적으로 트러스트 운동을 하는 곳은 세타가야구 뿐이라고 알려져 있음. 지방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를 확보하는 일반적인 트러스트 운동과 달리 비싼 도심에서 녹지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300㎡이상의 대규모 녹지는 구가 토지를 대여 받아 녹지로 보전·관리하고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세타가야구는 적은 재정으로 녹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과 관리유지비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고 함.
- 50㎡이상 작은 녹지는 세금 우대는 없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구에서 유지관리를 대신 해주고 연 7일 이상 일반에게 공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세타가야구가 조성한 기타자와 생태하천과 푸른 길

□ 주민사업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펀드

- 한편, 1992년 설립된 '마을만들기 펀드'는 공생의 집, 시민녹지 만들기 등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억 4천만 엔 정도를 보유하고 있음.
- 이 펀드는 기업가와 구민들의 기부, 재단과 행정기관의 출자 등으로 구성되며, 기금지원은 공개심사를 통해 하고 있음. 주민들이 사업발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공개심사를 해서 우수한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임.
- 마을만들기 펀드로 지원하는 '지역공생의 집'은 안식년으로 1년쯤 비우게 되는 집이나 노인들이 살고 있는 큰 집의 빈방 등 몇 개 공간을 마을만들기를 위한 사랑방으로 제공해주고 주민들 회의 장소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하

는 사업임. 이 사업은 지역에 남아 있는 빈집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음.

-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펀드를 통해 20년 동안 지원된 사업은 모두 450개, 지원을 받은 그룹은 250개에 이르며, 지원내용은 녹화사업, 주택만들기, 교류 네트워크 만들기, 장애인·고령자 지원, 육아 지원 등 매우 다양함. 마을만들기 펀드를 통해서선 건물이나 시설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활동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한 그룹에 50만 엔 이내로 하고 있음.

□ 주민주도,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성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의 특징은 주민주도,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현장견학

- 첫째, 주민주도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편익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행정구역에 따른 권역 설정이 아니라 주민이 생활공간과 주민 참여도를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공간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이 과정에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주민을 주체로 내세우는 관계가 정립되었음.
- 둘째, 하천복원사업을 비롯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세타가야구에서는 역사적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고 있음. 좁은 길이라도 녹색으로 사람이 다니는 공간을 따로 표시하여 보행자를 배려하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소공원(포켓파크)을 만들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기도 함. 사라진 하천을 실개천으로 복원하는 '가리수야마가와 녹도 조성사업'은 찬반이 갈리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토론·설득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음.
- 셋째, 일회성 전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고 있음. 마을만들기의 최초 사업이면서 주민제안식 사업이기도 한 타이시도 지역의 목조주택정비사업은 1982년 11월 '타이시도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벌써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관동대지진 이후 저층의 목조주택이 밀집해 있던 타이지도 지역주민들은 '방재'를 목표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좁은 골목길을 정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길을 내기도 하고, 막힌 골목길을 뚫어 연결하기도 하는 등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단체사진

질의 · 응답

Q : 동작구 의회도 마을만들기와 같은 종류의 일들을 정부에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타가야 구의 의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A : 행정과 주민사이 대립에서의 개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좀 더 높은 곳에서 마을의 전체를 보고 좀 더 포괄적인 방침을 정하지,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2000년 이후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업무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화해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편이며 30년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 주민 모두가 발전해나가고 있다.

Q : 세타가야구의 이주율은 어느 정도 인가?

A : 타이시도 지구에 8,600명이 살고 있지만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대학생은 학업이 끝나고 이주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간 25% 정도이다.

4. 재해발생시 대처행동 체험학습 시설



■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 (東京臨海広域防災公園)

〒135-0063

東京都江東区有明3丁目8番35号

www.ktr.mlit.go.jp/showa/tokyorinkai/

Tel: +81 03-3529-2180

	일본	11/5	수	12:30	도쿄
--	----	------	---	-------	----

□ 평상시 일반 공원, 재난시 방재 공원

- 대규모 지진 및 재해 발생의 경우 조직적인 구조 활동이 개시되는 시점은 지진 및 재해 발생 후 72시간 이후임. 도쿄도 고토쿠 아리아케 지역에 있는 임해광역방재공원은 재해 발생 시점부터 구조 활동이 개시되기 전까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시설로 13.2 ha 면적에 체험시설과 헬리포트(헬기 이착륙장), 베이스캠프 등을 갖추고 있음.



▲재해 현지대책 본부 상황실 모습

- 2008년 완공된 방재공원 내 위치한 재해 현지대책 본부는 2층 건물로 회의실, 정보관제센터, 체험장, 다양한 방재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운지, 세계의 방재 상품을 전시하고 방재 게임 체험을 통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방재 갤러리, 대형 프로젝터로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홀 등이 갖추어져 있음. 관리는 중앙정부인 내각부와 국토교통성에서 함.

-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은 평상시에는 일반 공원 및 재해 체험장으로 활용되며 재난발생 시에는 방재공원 역할을 함. 또한 도쿄에 직하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정보 총괄과 재해 응급대책을 조정하는 '재해 현지대책 본부' 기능을 하도록 조성했으며, 수도권 광역방재사령부 및 광역 지원부대의 베이스캠프이자 의료지원 기지 역할을 수행함. 가와사키 시에 있는 히가시 오기시마 지구의 물류 컨트롤 센터와 동일하게 기능하는 방재 거점시설임.
- 본부동과 아리아케 병원 사이 약 1ha 공원지역은 재해 시 구조대와 부상자 분류를 위한 장비와 설비, 의료지원 공간으로 사용됨. 헬리포트에서는 동시에 7대의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음.



▲ 도쿄 임해 광역 방재공원

□ 지진 등 재해 발생 직후의 대처행동을 체험하면서 학습

- 재해 발생부터 피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음향, 조명, 영상 등을 통해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으며, 체험 학습 중에는 닌텐도 DS에서 출제되는 방재퀴즈를 통해 주의사항을 확인하면서 피난장소까지 이동함.
- 방재체험동 건물 1층에는 지진 발생 72시간 생존전략을 가르치며,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부터 피난까지 일련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음. 체험은 닌텐도 게임기의 질문에 답하면서 피난장소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는가를 생존확률로 나타냄.



▲방재체험 학습 중인 아이들

- 지진 발생 상황을 음향, 조명, 영상으로 재현하여 체험하며, 방재창고와 텐트 등의 전시물을 보면서 긴급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 피난공간에는 자기 주변 생활용품을 이용해 목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해 놓음. 또 지진에 대비해 가정에 상비해야 할 다양한 방재장비가 전시되어 있음. 2층 견학장을 통해 1층 현지대책본부의 작전지령실을 관람할 수도 있음.

□ 재해 발생 시 흐름도

- 도쿄 23구 내에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관저에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함. 수상 관저가 사용 불가능할 경우 중앙합동청사 5호관, 방위성, 다치카와광역방재기지 순으로 대책본부가 만들어짐.
- 임해광역방재공원에는 현지대책본부가 들어서고, 내각부 부대신이나 정무대신이 본부장이 되어 현지의 피해 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응급 대책을 조정함.가와사키항을 통해 히가시 오기시마의 물류센터에서 긴급 물자수송을 개시함.



▲지진방재 체험장 견학 모습

5.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 요코하마시청 문화관광국 창조도시추진과
(横浜市文化観光局)

神奈川県横浜市中区本町6丁目

www.city.yokohama.lg.jp/bunka/

Tel: +81 080-3447-8953

	일본	11/6	목	13:30	요코하마
--	----	------	---	-------	------

□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재생되고 있는 요코하마

- 전체 인구 370만 명인 요코하마는 메이지유신 때 제일 먼저 항구를 개항한 곳으로 우리나라 인천과 같은 개항 도시임. 개항을 전후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과 산업시설들이 다수 남아있으며, 요코하마 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들을 활용하여 도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음.
- 미나토미라이21 재개발과 모토마치(元町)상점가의 형성으로 원래 중심 시가지였던 칸나이(関内)·야마시타마치(山下町)가 쇠락하게 되자 2002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검토위원회'를 통해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함.
- 그 결과 유럽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reative city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2004년 1월 '문화예술도시-Creative City 형성을 향한 제언'을 작성함.
- 이 제언에는 △예술가, 크리에이터가 살고 싶은 창조적 환경 실현 △창조적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에 의한 경제활성화 △매력있는 지역자원의 활용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라는 기본 방향이 담겨있음.
- 요코하마 창조도시 정책은 바닷가와 가까운 시내 중심부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총 18개 구 각 구청마다 창조도시 추진과가 있어 개별적으로도 관리함.

□ 요코하마 창조도시를 위한 7가지 추진사업

- 영상문화 도시조성 추진사업 : 요코하마 시는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의 지식·기술 등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공개 강좌 개최나 오픈스튜디오 등 지역공헌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요코하마로부터 매력있는 영상문화를 전파하고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에서 개최하는 영상제를 지원함. 도쿄 예술대학 캠퍼스에서는 주로 미디어·애니메이션·영상을 가르침. 캠퍼스는 요코하마 내 3군데에 자리 잡고 있음. 대학과 함께 여러 영상문화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 외에 시민 참가형 사업으로 22년째 요코하마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



▲도쿄 예술대학 캠퍼스

- 아트커미션 사업 :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창조가(Artistic Creator)를 육성하기 위해 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창조의 주역들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해 창조예술가 전용 윈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활동에 대한 상담, 보조 등을 실시함. 이곳은 새롭게 아티스트·크리에이터와 기업을 매칭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창조적 사업을 진흥하는 모델 사업을 실시함. 과거 오래된 건물의 사무소로 쓰던 장소를 복원하여 예술창조가의 활동 장소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외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는 개조함. 과거의 건물을 후세까지 보존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이에 예술창조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 창조도시 시민 연대 사업 : '거리 전체를 스테이지로'를 컨셉으로, 거리 진흥과

방문객의 재방문을 창출하는 '요코하마 JAZZ PROMENADE'를 개최·지원함. 또한, 니혼오도리를 메인무대로 시민 뮤지션을 중심으로 출연자에 의한 다지점 동시 콘서트 '훗치푹치 뮤직 페스티벌' 등 이벤트 개최를 지원

- 스마트 일루미네이션 사업 : 일본에 설치되어있는 일루미네이션(전구나 네온관을 이용해서 조명한 장식이나 광고)은 많지만 요코하마같은 경우에는 일루미네이션을 예술창조가가 만들고 있고 매년 스마트 일루미네이션 이벤트를 개최함. 겨울철 일루미네이션 시즌에 맞춰,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임해부의 야경을 소전력기술과 아트의 힘으로 연출하여, 도시의 매력 향상을 도모함. 2014년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과 연대하여 츠루미구, 가나자와구, 미도리구 등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우석, 한진수, 이재민 등 한국 유명 예술가도 참여함. (www.smart-illumination.jp)
- 창조지대 활동 지원 사업 : 역사적 건축물이나 창고 등, 도심부의 지역자원을 유효 활용한 창조지대 거점으로서, 요코하마 창조도시 센터(구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 BankART Studio NYK(요코하마 해안 창고), 큐나자카 스튜디오(구 노송회관), 조노하나 테라스 등을 운영·관리하고,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가 모일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홍보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 또한, 일찍이 위법한 소규모 음식점이 많이 있던 하츠코·히노데초 지구에 대하여 계속 지역주민·경찰·행정이 일체가 되어 문화예술의 힘을 활용한 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함.
- 코가네쵸(黄金町) : 과거에는 유흥가로 번창한 우범지대였으나 다시 조용한 마을로 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예술의 거리 살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 아티스트 및 건축가, 디자이너, 방문객과 현지인 등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철 고가 아래의 스튜디오 및 특수한 음식점을 개장한 공간을 아티스트 및 건축가, 소설가의 일터로 활용하고 있음.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은 각각의 스튜디오를 공개하는 '열린 스튜디오'를 실시하고 있어, 스튜디오에서의 작품전시 및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제작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흥미로움. 그 외, 전람회 및 이벤트 등도 수시로 개최됨.
- 창조도시 국제 교류 사업 : 창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연대 및 교류를 촉진하는 '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CCNJ)'과 연대하여, 각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창조도시 보급 및 개발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하는

사업임. 또한, 국내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일꾼들이 모여, 새로운 창조도시 실현에 대하여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함. 2014년 10월 현재, 총 38개 지자체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15개 단체, 15명의 개인이 참가

- 동아시아 문화도시 국제교류사업 : 1985년부터 유럽(EU)은 그리스 아테네를 첫 문화수도(Capital of Culture)로 지정한 후, 매년 한 도시를 문화수도로 지정하여 유럽 내의 문화예술의 교류와 관광 진흥을 도모해 오고 있음. 이 프로젝트를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4 요코하마 로고

- 벤치마킹하여 2014년부터 한중일 3국이 협조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매년 도시를 한곳씩 선정하여 교류와 함께 새로운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올해 선정된 한중일 도시는 광주, 취안저우, 요코하마이며, 요코하마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벤트를 개최하여 각국의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중임. △아시아 유스·발레 위크 요코하마 △한중일 전통 인형극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국제공동 제작 △한중일 요코하마 모래 조각전이 개최됨. 이 외에 청소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각국의 중고생들이 방문하기도 함.
- 구)관동재무국 보전·내진 대책사업 : 요코하마 시에 등록된 역사적 건축물인 (구)관동재무국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포함한 개수공사를 실시, 크리에이터의 오피스나 카페 등이 있는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해 2013년에 기본설계 착수함. 내진개수 후에는 민간사업자와 연대하여 창조산업의 집적을 추진하고 지역번영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증핵시설로서 활용
- 트리엔날레 : 요코하마 시는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문화예술 이벤트를 3년마다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8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화씨 451의 예술: 세계의 중심에는 망각의 바다가 있다' 라는 테마로 개최함. 장소는 요코하마 미술관과 신코피아이며,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조직위원회, 요코하마 시, 요코하마 시 예술문화진흥재단, NHK, 아사히신문사가 주최함.



▲요코하마 문화예술 이벤트 홍보 포스터

□ 문화예술 · 관광 진흥을 목표로 안 마을만들기

- 일본 버블경제 붕괴 이후 도시 간 경쟁이 심해져 마을만들기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의 개성을 살린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요코하마는 문화예술, 관광의 시점에서 도심 마을만들기를 검토하고 있음.
-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티브 5천 명, 창조산업종사원 3만 명, 문화·관광객 3백5십 명, 문화·관광객용 시설 1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코어 창조일대 조성, 영상문화도시, 야마시타 항구 지역 개발을 통한 내셔널 아트파크조이 주요 프로젝트임.

□ 역사적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재생

- 요코하마는 150년 전 개항 시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물건이나 사람이 오가는 교역도시로 지금도 도심에 소중히 남아있는 역사적 건축물을 비롯해 재즈와 음식, 패션 등 동서양 문화가 혼재된 근대 도시로 문화의 다양함을 보여줌.
- 요코하마 시 당국은 이런 역사적 건물을 활용하여 여러 행정 규정을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코하마 도시 문화 살리기를 실천

- 원래 요코하마 현청 옆에 있던 창조도시센터를 창조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1929년에 지어진 구 제일은행으로 이전하여 2008년부터 '요코하마 크리에이티브 센터(Yokohama Creative Center)'로 개명하면서, 문화·예술교류의 거점이 되길 원함.
- 'BankART 1929(뱅크아트 1929)'는 요코하마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창조 프로젝트로, 역사적 건물을 활용한 도심 재생을 꾀함. 1929년 요코하마시에 설립된 구 제일은행 건물을 최초의 베이스캠프로 삼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임. 요코하마 곳곳에 있는 버려진 시설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버려진 부두 창고를 이용한 뱅크아트 스튜디오
으로, 현재는 구 제일은행 건물, 일본의 우편선 창고(뱅크아트 스튜디오), 신(新)미나토 구의 항만 창고(해머 헤드 스튜디오 신미나토 구) 등에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해 활동 중임.

□ 뱅크아트 1929 운영사업 및 프로젝트

- 홀, 갤러리, 카페, 서점,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뱅크아트는 가능한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코디네이트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도시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며, 미술관을 뛰어넘는 예술 공동체의 장임. 뱅크아트는 한 해 평균 1,000개가 넘는 제안서를 받고 그중 3분의 1을 실현시킴.
- 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개항도시로서 요코하마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한 무대예술, 전시, 축제 등과 연계된 것이며, 한일 교류프로젝트인 '조선통신사'와 '모던보이·모던걸을 찾아서'와 같은 행사도 진행됨.
- '아트뱅크 1929'에서 추진하는 '아티스트 인 스튜디오'사업은 8개의 스튜디오를 2개월 단위로 예술가들에게 빌려주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며, '뱅크아트 스쿨'은 2개월에 8개 강좌를 기본단위로 하여 운영되는 강의 프로그램임. 한편,

프로젝트에 참여한 강사진과 학생들은 다른뱅크아트 프로젝트의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요코하마 시는 뱅크아트를 위해 오래되어 처치 곤란한 건물을 무상 임대해주고 연간 약 8,000만 엔(약 8억9800만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함. 단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뱅크아트에 일임함. 기발한 예술적 아이디어로 도시가 살아나고, 시민들은 거리낌 없이 뱅크아트에 찾아와 예술을 향유하며, 도시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고 있으니 급기야는 투자 금액도 회수하기 시작함.

대상지구	현황	역사적 건축물	용도
니혼오도리 (日本大通り)	현청, 재판소 등이 늘어서 있는 관청가, 근처에는 개항자료관 및 신문박물관 등의 시설 존재	- 옛 관동재무국 - 옛 노동기준국	- 2005년에 개최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자원봉사자 및 작가의 활동거점 - 아티스트 스튜디오
사쿠라키초(桜木町), 노게(野毛)	- 저층음식점이 모여 있는 변화가 - 미나토미라이 선의 관통에 따른 토요코센 폐선으로 사쿠라키초역 폐지되어 경제적 쇠퇴 진행	노게야마(野毛山)의 옛 결혼식장	- 무대예술 창조활동의 거점 ·요코하마의 부족한 연습장 및 지역연계사업 진행
바샤미치(馬車道)	- 개항 시 외국인 거류지 - 미나토미라이21지구 발전으로 경제적 잠재력 감소 - 주변에 역사적 건조물 다수 존재	옛 제일은행	문화예술용도(전시, 공연 등)로 이용
		옛 후지은행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영상 연구과 유치

▲창조핵심형성지구 개요

□ 수익의 재월용을 통한 지속 관리

- 2004년부터 요코하마 시 정부와 비영리활동법인(Non Profit Organization, 이하 NPO)이 함께 시행한 문화예술프로젝트로, 3개의 기업으로부터 건물을 기증받았으며, 요코하마 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2개의 NPO법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
- 요코하마 시는 아트스페이스로 개조된 건물들의 장소운영비, 광열비, 운영 위탁비, 사업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담당함.

- 건물의 위탁경영권을 위임받은 NPO는 전시와 공연을 비롯한 아티스트 레지던스, 출판, 교육, 컨설팅 등 연간 6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최하여 사업수익을 벌어들이는 형태로 운영됨.
- 시설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시에 환수되지 않고 NPO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재투자되어 NPO의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의 개발자금으로 사용됨.



▲요코하마 창조도시 개발구역

질의 · 응답

Q : 요코하마 시와 중앙 정부에서 아티스트에게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A : 아티스트의 스튜디오개업 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요코하마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 한명의 아티스트 당 50만 엔에서 200백만 엔 사이의 금액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Q : 요코하마 창조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문화와 예술을 주요 테마로 정하였는가?

A : 아티스트들을 요코하마에 모여 살게 해서 요코하마 내의 기업들과 소개시켜 주어 요코하마 시 지역경제 발전의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 큰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원금을 받는 아티스트들은 반드시 5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며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가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도시와 건물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도시 발전의 효과도 생겼다.



▲질의·응답 모습



▲브리핑 모습

6. 여성 취업촉진 및 취업 장려 프로그램 운영정책



■ 도쿄 시고토센터

(東京しごとセンター)

東京都千代田区飯田橋3丁目10番3号

Tel: +81 03-5211-2306

	일본	11/7	금	15:00	도쿄
--	----	------	---	-------	----

□ 모든 연령의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 시고토 센터는 도쿄도가 1996년 700억 엔을 들여 설립한 취업 대책 센터로 고령자(55세 이상)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때 시니어 워크(Senior Work) 센터로 불리기도 했음. 적성검사부터 취업교육, 구직지원까지 도와주는 말 그대로 '원스톱 취업 서비스' 센터로, 지상 25층 건물에서 12층까지 고령자 기술전문학교 등 고용 관련 기관이 뽁뽁이 입주해 있음.
- 청소년에서 고령자까지 모든 연령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적성이나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취업상담과 취업 후 도움이 되는 지식·기술을 습득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능력개발, 구인정보 제공·직업소개 등 취업에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 △도쿄 시고토재단 △민간 취업 지원회사 △온라인 취업포털 정보제공 서비스인 헬로워크 등 세 개의 기관이 일체가 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취업지원 시스템은 청년, 중년, 노년, 여성 섹션으로 나뉘 △1단계: 최초의 통합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 △2단계: 상담 결과에 맞게 취업활동지원 세미나·능력개발과정, 직업카운셀링·직업상담 과정, 창업/NPO·봉사활동 과정 등을 개개인에 맞춰 제공 △3단계: 직업소개, 채용지원 등의 세부과정으로 나뉘어 채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업종별 협회와 손잡고 20여 개 직업 연수도 시키며, 상담과 적성 검사를 통해 구직자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줌.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일본 맨파워' 등 두 개 민간 업체는 시고토 센터의 위탁을 받아 전문직에 관한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 줌.

- 도쿄 시고토센터를 운영하는 공익 재단법인 도쿄 시고토재단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취업 시스템인 '보람 취업'을 실현하는 실버인재센터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근로방식에 관련된 조사·연구, 정보제공, 상담 및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함. 이외에도 중증 장애인 및 지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직업 상담·소개 등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연령별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 종합상담 :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안내
 - 전문상담(예약제) 및 기업창업상담 : 직업적성검사, 상담사회보험연금 상담, NPO 등의 다양한 근로방법 상담
 - 택아서비스, 수화 통역 서비스도 이용 가능
- 34세 이하 대상 서비스
 - 커리어 카운슬링 : 민간취직지원회사의 어드바이저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어드바이스나 카운슬링을 실시, 취직활동을 서포트함.
 - 각종 세미나, 직업체험 등 취직활동의 진행 방법이나 자기분석, 응모서류, 면접매너 등 취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음
 - '헬로워크 이이다바시 U-35'와 연계한 직업소개 : 도쿄도내 전역과 치바·사이타마·카나가와현의 일부 헬로워크 구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소개를 받을 수 있음
- 30세 이상 54세 이하 대상 서비스
 - 커리어 카운슬링 : 민간취직지원회사의 어드바이저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어드바이스나 카운슬링을 실시, 취직활동을 서포트함.
 - 구직활동 지원 세미나 취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기분석, 응모서류, 면접기법 등 실천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음
 - 비즈니스 부분의 능력개발 : 직업소개 어드바이저가 개인의 개성이나 상황을 참고해서 민간 취직지원 회사의 구인정보를 제공함.
- 시니어(55세 이상) 대상 서비스
 - 취업상담 : 시니어의 구인 상황이나 구직활동의 포인트를 참조한 어드바이저

의 세심한 상담

- 커리어 카운슬링 : 구직활동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문제점의 정리나 방향성의 결정을 지원

□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 프로그램

-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을 한 여성 중에는 가정과 일을 공동 병행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백 기간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능력이 통용될까 하는 불안 등으로 업무에 복귀를 주저해 경력단절 여성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쿄도에서는 2014년 7월 26일 시고토센터 1층에 '여성 재취업 지원 센터'를 오픈함.

▲여성 재취업 지원 센터 오픈 홍보포스터

- 여성 재취업 지원 센터에서는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여성에게 재취업 활동 정보 제공서비스를 비롯한 비즈니스 기술, 전문 능력을 교육하는 능력개발, 이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직장실습·체험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 건물 내 1층에 '여성전용 일 응원 테라스'를 운영하여 구직상담, 워크숍, 취업 정보,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음.



▲여성 재취업 지원 센터 이용방법

- 여성 재취업 지원 및 육아여성 지원, 사무기본, 중년여성 취업,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또, 센터와 계약이 체결된 기업에서의 직장체험, 실습 후 전문 직업 상담원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복귀를 지원하며 세미나, 혹은 재취업 프로그램 진행시에 무료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 취업 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든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브리핑 및 현장견학 모습

7. 시사점 및 정책제안

1) 노인 및 유아복지

□ 평생교육 차원의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 세타가야구 생애대학은 주1회 세미나 방식의 강의와 건강체육 중심으로 학습하며 학생들의 자주적·주체적인 교류와 각종 서클활동도 하고 있다.
-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를 단순히 노인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재정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노인문제에 대해 노인들이 스스로 대처할 능력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노인교육을 여가나 오락 차원이 아닌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인식 하에 노인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인교육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 다가오는 미래는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노인들의 교육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교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와 학습권의 평등 차원에서 노인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기초단체별로 일부 노인대학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대학 운영자들이 강사료 지급 등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노인교육의 재원을 일반 성인교육에서와 같이 수익자 부담에만 의존하여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다.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노인대학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

여야 한다.

□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금까지 노인교육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노인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에 관한 교육' 그리고 교육적 자원으로서 노인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에 의한 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교육의 세 부분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맞물려 이루어지는 동시적인 것이며, 이런 교육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로가 동시에 어울려 진행될 때 더욱 높은 교육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교육의 이 세 부분의 공통적 이해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세대공동체 교육(the community of generations education)이다.
- 다시 말하면, 세대공동체 교육은 여러 세대 또는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교육은 궁극적으로 노인과 성인 그리고 청소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동체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 세대공동체 교육은 세대 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즉, 학교 및 기타 수업장면에서 세대 간의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세대 및 여러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유치원·보육원의 다양성을 인정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설립

-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소가 통합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유보통합의 방향을 동 시설의 보급 확대 및 질적 향상에 두었다. 유치원과 보육소 각각의 제도를 인정하고, 이행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 두 시설을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의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보육소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약 80%에 이르며,

결국 일본 정부는 유치원과 보육소에 관련된 모든 제도와 형태를 굳이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보다 각각의 제도를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법을 개정 및 발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도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 대통령 임기 내에 통합을 완료하려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육부·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보면, 현재처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유용한 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택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이다.
- 즉, 우리나라의 학부모들도 일본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적인 통합을 원하기 보다는 두 시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유보통합의 방향을 교사·시설간 격차를 축소하면서도 유치원-어린이집 형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 기존 시설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앞으로 신설될 시설에 대해서는 두 시설 중 높은 수준의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여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유치원 놀이기구 목재 장난감 사용 활성화

- 일본은 산림면적이 전 국토 대비 86.2%로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산림보급율이 높고 나무 장난감은 플라스틱에 비해 건강에 좋은데도 왜 나무 장난감은 플라스틱 장난감에 비해 보급률이 낮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나무장난감 전시·체험과 함께 보급운동을 시작했다.
- 하네기 어린이원에서는 '나무와의 만남'이라는 사업비 보조금에 의해 도쿄 타마 지역에서 생육된 목재를 사용하여 만든 놀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도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장난감을 손자가 물려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오래된 장난감을 물려받음으로써 어려서부터 물건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효과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의 산림면적도 전 국토 대비 63.5%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유치원 및 보육원에서도 대부분의 수입산 플라스틱 장난감 및 목재 장난감 대신 국내산 나무장난감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 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지역리더 양성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아트뱅크 1929'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티스트 인 스튜디오'사업은 8개의 스튜디오를 2개월 단위로 예술가들에게 빌려주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는 면에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인력양성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뱅크아트 스쿨'은 2개월에 8개 강좌를 기본단위로 하여 운영되는 강의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진과 학생들은 다른 뱅크아트 프로젝트의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세타가야구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배워야 하는데, 이런 합의 도출 과정 자체를 주민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의 최초 사업이면서 주민제안식 사업이기도 한 타이시도 지역 목조주택 재정비사업은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추진조직을 통한 교육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타가야구에서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생활환경지표' 발간사업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적 목적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추진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시간에 쫓겨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도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다. 이런 일을 막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타가야구는 일본 최초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전담부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만 하고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지만,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회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마을만들기 편드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발표한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지원한다.
-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성과가 아닌 주민과의 합의·조정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방식은 배울 만한 일이다.
- 관에서 지원을 했다고 간섭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전문가와 민간에게 위탁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 스스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 뱅크아트 프로젝트는 3개의 기업으로부터 건물을 기증받아 요코하마 시가 시설을 제공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은 민영화하는 이른바 공설민영(公設民營)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요코하마 시는 아트스페이스로 개조된 건물들의 장소운영비, 광열비, 운영 위탁비, 사업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6천만 엔에서 8천만 엔 정도를 지원할 뿐 운영은 문화예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있다. 홀, 갤러리, 카페, 서점,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뱅크아트는 가능한 한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코디네이트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 설립

- 지역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이 아니라 '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NPO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뱅크아트1929를 운영하는 NPO법인 등은 시설과 기본 운영자금은 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은 주민과 함께 해나감으로써 공동체 복원 및 지역재생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정부로부터 시작한 지역재생사업을 비영리 민간재단이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부럽지 않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 중요

- 도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역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다.
-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무사시노시의 환경도시 사업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구나 시에서 적극 나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전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지산지소를 염두에 둔 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산지소'는 마을만들기의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일본은 일본산 목재로 만든 나무 장난감 보급을 위해 갓 태어난 유아에게 목재 장난감을 선물로 지급하는 '우드 스타트(Wood Start)'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의 목공예산업을 활성화하고 일본 목재로 만든 장난감을 널리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을 한다면 우선 목재산업이나 나무를 이용한 공예산업이 발달한 곳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시설활성과 및 주민소득 향상 전략 수립

- 마을만들기를 통해 좋은 시설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장난감 미술관은 좋은 장난감 선택, 장난감을 만드는 체험, 자원 봉사자 육성과 같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방문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으며, 고토랩은 노령인구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슬럼화 된 마을을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숙박시설 제공사업(호스텔 빌리지)을 통해 마을도 살리고 공동체 문화도 조성하고 있었다.

- 집주인을 설득하여 오랫동안 방치한 빈방을 젊은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호스텔로 개조하였는데, 호스텔에서 나오는 수익은 주인과 고토랩이 각각 절반씩 나누는 구조로 운영했으며, 인근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성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 고토부키쵸는 숙박촌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 객실 내부수리부터 시작해 거리와 옥상에 화단을 설치하고, 곳곳에 벤치를 제작하기도 하고 1평짜리 평상을 설치하는 등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올렸다.
- 고토랩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항상 모일 수 있도록 상가를 렌트하여 '모퉁이 방'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싼값에 대여해 주고 있다.
- 고토부키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회화수업, 아티스트들의 예술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의 주민들을 버려진 유권자로 취급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투표율 올리기 선거캠페인'을 추진,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고토부키 주민들이 자연스레 사회에 어울리게 하기 위한 식당, 의료 보급, 사랑방 등의 지원사업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 집'은 안식년으로 1년쯤 비우게 되는 집이나 노인들이 살고 있는 큰 집의 빈방 등 몇 개 공간을 마을만들기를 위한 사랑방으로 제공해주고 주민들 회의 장소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 무사시노시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역커뮤니티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커뮤니티 버스(Community Bus)를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 내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만들어 '작은 강아지를 찾습니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등 지역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 근대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만들기

- 우리나라도 비문화재이지만 개항기 이후에 건축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대문화유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활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오래된 건물이나 유산을 헐고 새로 건축을 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근대 문화유산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큰 틀에 개별 건물을 포함시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요코하마 시는 구 제일은행과 구 후지은행 등 1929년에 설립된 역사적인 은행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프로그램으로 '뱅크아트 1929'를 추진했다. '뱅크아트 1929'는 건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 학교, 출판, 카페, 펍, 서점 등에서 미술, 건축, 퍼포먼스, 음악 등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연간 650여 건 이상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 또 다른 예로, 1907년 개교해 100년 역사를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요즈야 제4초등학교는 도심 공동화로 2007년 폐교가 되자, 주민들은 학교를 허물지 않고 역사적 건물로 보존하기로 고 최종적으로 장난감 미술관을 이전해 오는 것으로 결정했다.
- 고토랩(Goto Lab)은 요코하마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령화와 실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존 숙박촌의 총 8,000여 객실 중 약 2,000실이 빈 방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하여 호스텔로 바꾸는 사업을 주민조직과 함께 추진했다.

□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빈집 조사는 하고 있지만, 빈집을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고, 폐교도 종합적인 활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불하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서 하나의 컨셉을 정하고 그에 맞춰 종합적인 빈집·폐교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고토랩의 빈 방을 호스텔로 변경한 사례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장난감 미술관으

로 활용한 사례, 지역의 산업유산을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등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재생에도 도움이 된다.

4)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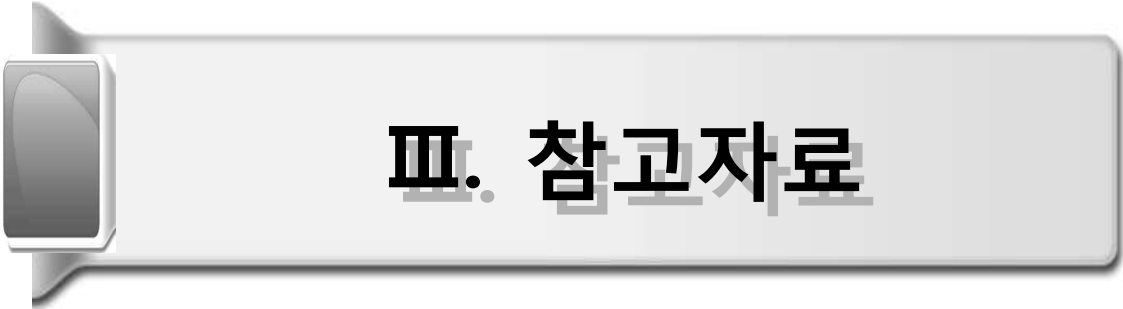
□ 취업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유관기관 운영 적극 지원

- 가족지원정책의 강화만으로는 여성의 경제참여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잠재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위치와 분야에서 여성이 소수이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고용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단지 조직 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지역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수혜대상이 1년에 30명에 불과해 여전히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인력이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으로 실질적인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여성'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어 나간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둘러싼 많은 문제점이 점차 극복될 것이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유관기관 운영 적극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담당자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지 않았고, 홍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력단절여성에게는 고용센터보다는 새일센터 등이 더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다수의 경력단절여성이 본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시 발생하는 어려움 제거 노력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ㅍ. 참고자료

참고자료: 타이시도 2·3지구 지역 마을만들기 및 지구 계획

□ 지역 마을만들기 계획이란(1985년 제정⇒2008년 4월18일 변경 고시)

-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라 그 지역의 특징을 담은 마을만들기의 규칙을 주민과 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마을만들기의 목표, 마을만들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인 토지이용, 도로·공원 설비의 배치, 건물의 높이 등 건축물에 제한에 대해서 정한 것 이다. 또한 지역 마을만들기 계획의 제정된 지구에 있어서 건축행위 등 의 유도가 필요할 경우 구에서는 그 지구를 마을만들기 유도 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행위 등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여 지구 마을만들기 계획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 타이시도 2·3지구는 마을만들기 유도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동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 지구로써 마을만들기 추진지구로도 등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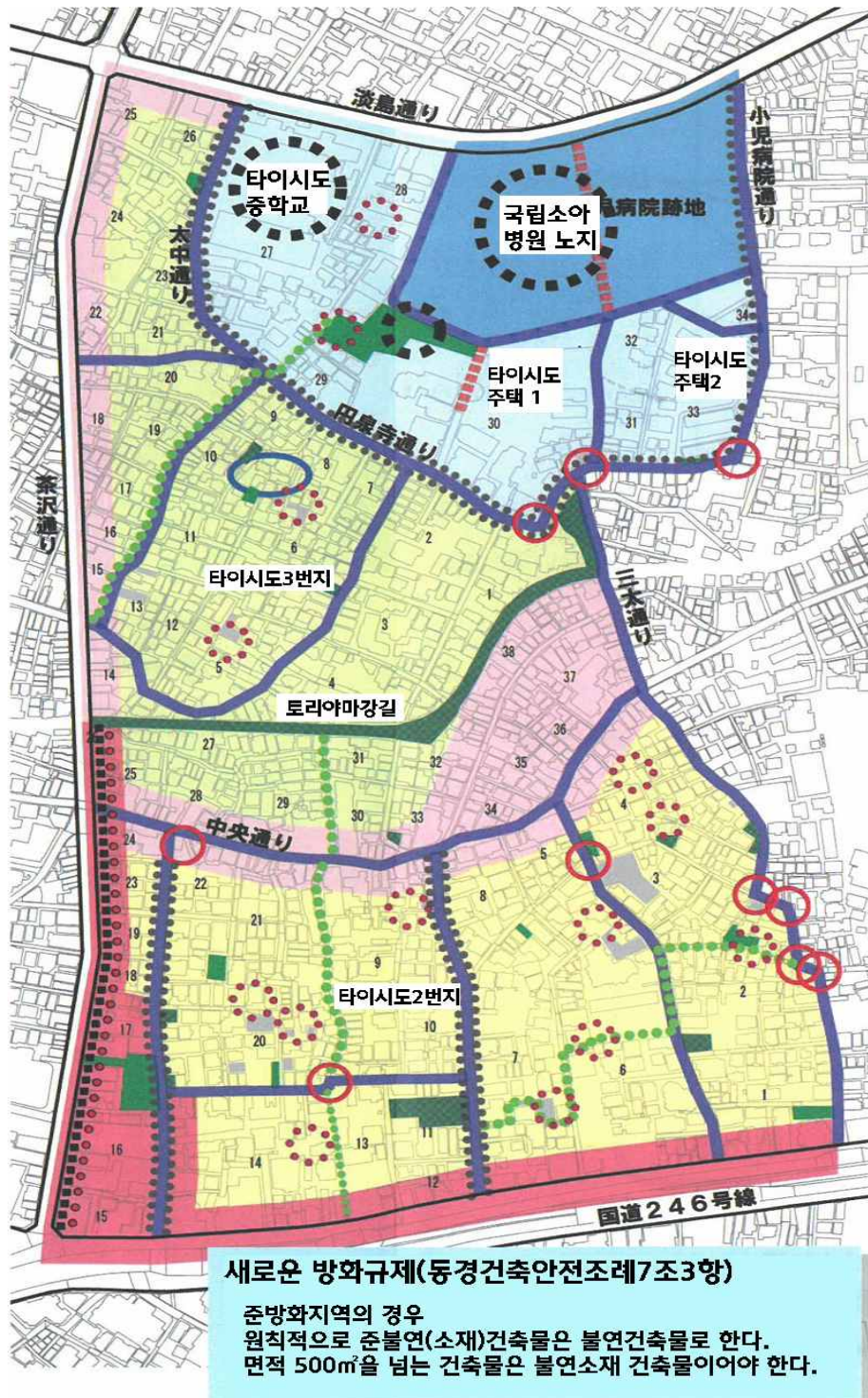
□ 지구계획이란(1990년 12월 6일 결정고시)

-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제도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 도로, 공원 등에 대해 지구의 조건을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세타가야 구에서는 타이시도2·3지구 마을만들기 계획으로 정한 조건에 법적 공헌을 부여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을 결정하였다.
- 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등에 관해서는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타이시도 2·3지구 마을만들기 계획

- 타이시도 지구는 도시기반정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며 밀집 지역으로써 방재상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 변경계획에서는 국립아동병원 부근 일대를 광역피난장소지정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의 토지이용의 적정화(適正化), 건축물의 불연화·안전화, 도로 폭을 넓히는 정비, 공터 확보, 피난기능 강화, 지금까지의 주민 참가에 따른 복원형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해에 강한 마을의 개선·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타이시도 지구의 마을만들기의 방침을 정한 지구 마을만들기 계획은 1980년 제정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지구 북쪽에 위치했던 국립소아병원 이전 후, 대규모 집합주택의 건설이나 공사주택의 건축 등 지구의 상황이 많이 변화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008년 4월에 지구마을만들기 계획으로 변경했다.



□ 토지이용계획

- 지구내의 토지이용을 6개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상업업무 지구(상업지역)
	상점가 지구(이웃 상업지역)
	주택지구 I·II(I:제1종 주거지역,II:제1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불연 촉진 지구
	피난장소 지구

□ 타이시도2·3 지구 계획

- 지구성을 고려하면서 토지이용의 적정화, 건축물의 불연화 소재 사용 촉진, 공터의 확보, 복원형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재해에 강한 지역으로의 유도과 형성을 도모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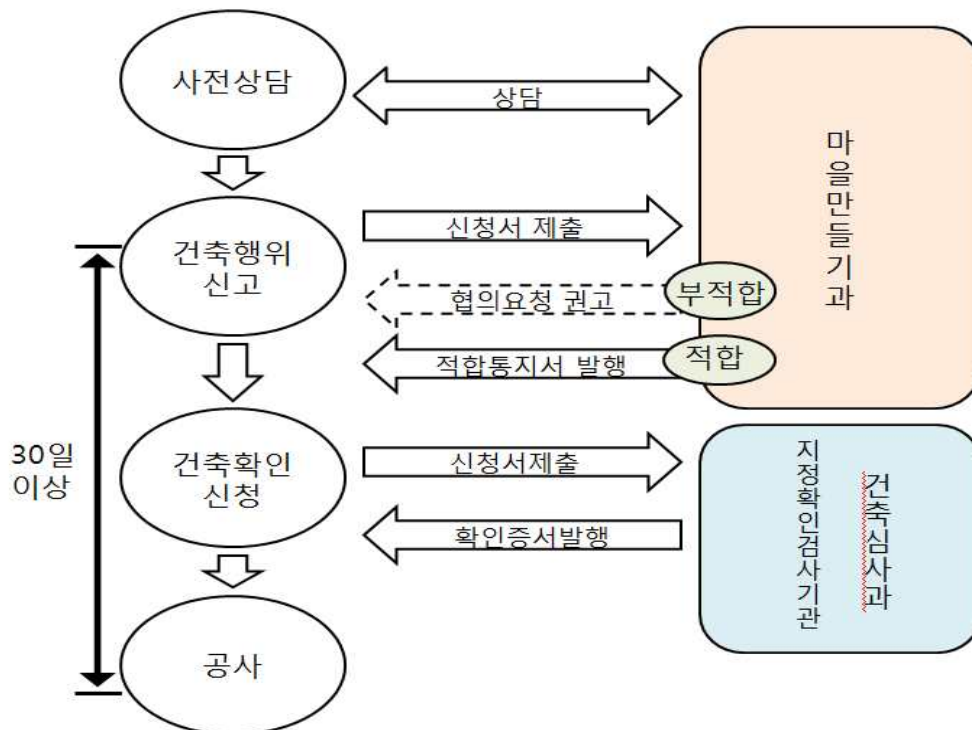
1. 상업업무지구 : 도로 확보보다 매력 있는 쇼핑 공간의 정비를 도모한다. 지구 전체로써는 주변 주택지의 이주환경을 배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옥외 광고물의 색상이나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다.
 2. 주상협조지구 : 점포·사무소와 주택의 공존을 위해 건축물의 공동화, 협조나 도로확대 등에 따라 친숙한 상점가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3. 주택지구 I 과 주택지구 II : 건축물의 불연소재사용,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부지 세분화의 방지, 원룸 맨션이나 이주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한한다. 또 지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로길의 높은 탑 등을 제한 한다. 또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배려한다.
 4. 공공공영시설집중지구 : 대규모 토지이용을 유지 시키는 것과 함께 재해시에 시설 내 공터가 일시 피난장소로써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비한다. 또한 경사지 등의 남아있는 수목의 안전과 육성을 도모한다.
- ▶ 구청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아래와 관련된 건축을 진행할 경우 30일 전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과에 「지구 마을만들기 계획」과 「지구 계획」의 수속을 해야 한다.

* 토지 구획 형질(形質)의 변경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건설
- * 건축물 용도 변경
- * 건축물 형태 또는 디자인의 변경
- * 목재의 벌채(伐採)

The image shows two Japanese administrative forms. The left form is titled '地区街づくり計画' (Area Street-making Plan) and the right form is titled '地区計画' (Area Plan). Both forms include sections for project details, maps, and official stamps. The forms are in Japanese and contain various fields for administrative use.

▲지구 마을만들기 신청서와 지구 신청서



▲사전 설명부터 공사 착공까지의 흐름

참고자료: 츠키시마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사례

□ 츠키시마 재래시장의 개요

- 츠키시마 재래시장은 약 100년 전에 츠크다지마(佃島) 섬 매립지에 조성된 지역으로 선착장 주변의 서쪽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상점가가 형성된 것에서 발전되었다. 초기의 상점은 츠키시마 중앙도로(키요스미 거리)보다 서쪽 몬자도리(西仲通り)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메이지 시대 말에는 노점상과 함께 상가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츠키시마몬자 거리상가(月島西仲通り商店街)'의 시초이다.
-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지역은 직접적인 전재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부흥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46년 9월에 몇 개의 개별 건물로 존재하던 상가가 하나로 통합되어 츠키시마 재래시장으로 새롭게 발족되었다.
- 츠키시마 재래시장에는 식료품 및 일용품, 의류 및 잡화, 음식점, 서비스업 등 약 130개의 점포가 있으며 츠키시마 공영회상점가진흥조합(月島西仲通り共栄会商店街振興組合)이라는 상인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 연대사와사업의 주요 내용

- 1946년 별개의 분리된 상가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츠키시마 공영 회상점가진흥조합이 설립되어 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쿄 중앙구의 츠키시마지구 재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던 츠키시마 재래시장도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쿄 중앙구의 츠키시마 지구 재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상가 협동조합은 이전의 기본구상에 따라 “마을 만들기”의 준비를 위해 자치구 상공과에 “상가진단”을 요청하고, 이 외에도 선진상가의 시찰, 상가현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 츠키시마 재래시장은 “가고 싶고, 걷고 싶고, 즐겁게 만나는 거리”라는 사업 목표에 따라 선진상가 시찰, 공동시설 착공, 아케이드 설치 등 상가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피 카드(Happy Card)”라는 적립 시스템 도입, 판촉 활동 및 이벤트 등을 통해 상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매너리즘에 빠졌던 사업이 활성화되어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한 판촉기획이 목적을 달성하여, 신규 고객 유치, 포인트 카드의 가입률 증가에 따른 고정 고객화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츠키시마 재래시장의 도시재생 연혁

연도	주요 사업 내용
1946	각각 분리된 상가를 「츠키시마 영회상점가」로 통합
1954	임의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개편,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노력 시작
1960	보차도의 구분과 제1차 아케이드 완성, 상가 콩쿠르에 도지사상 수여
1963	상가진흥조합법의 제정에 따라 진흥 조합으로 개편
1970	「전국상인연합회의 스탬프제도」에 가입하여 회원스탬프의 활동 시작
1981	츠키시마 기념일(月島觀音ご縁日)에 「깜짝 세일」 개시 (12월부터 / 매월 27일)
1982	「상인회 뉴스」 발행(5월부터)
1985. 2	「발전의 이정표」라는 상가진단서 완성
1985. 8	「환경정비실행위원회」를 구성, 전문홍보잡지 「이미지 업 포럼」을 발행
1986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가고 싶고, 걷고 싶고, 즐겁게 만나는 거리”로 설정, 시설의 디자인을 전문가의 검토결과에 따라 서민적인 쇼핑물식으로 연출(박공식 지붕의 아케이드 설치, 컬러 보차도의 설치 등)
1987. 9	공동시설(아케이드, 가로수, 문, 안내판, 단계차도 등) 착공
1988. 3	공동시설 완공
1988. 6	지하철 유라쿠초선 개통 기념, 츠키시마 축제 88수레 판매
1992.1	츠키시마 100년 기념 축제

1991. 7	카드화 추진위원회 발족
1997. 4	'해피CARD' 탄생 기념 봄세일
	이후 매년 여름, 겨울에 '체험카드 추첨', '만점카드 보너스 항공권 박람회' 개최
2001.1	매월2일(2,12,22일)“포인트2배”판매시작

- 츠키시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포함한 츠키시마 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제어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구계획에서는 지역에 부적합한 용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최소 부지 면적,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최소 혹은 최고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 용도(리브호텔과 성인쇼핑몰)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으며, 통로에 면한 부지에서는 자동차 주차장과 부속 자동차 주차장은 건축할 수 없다.